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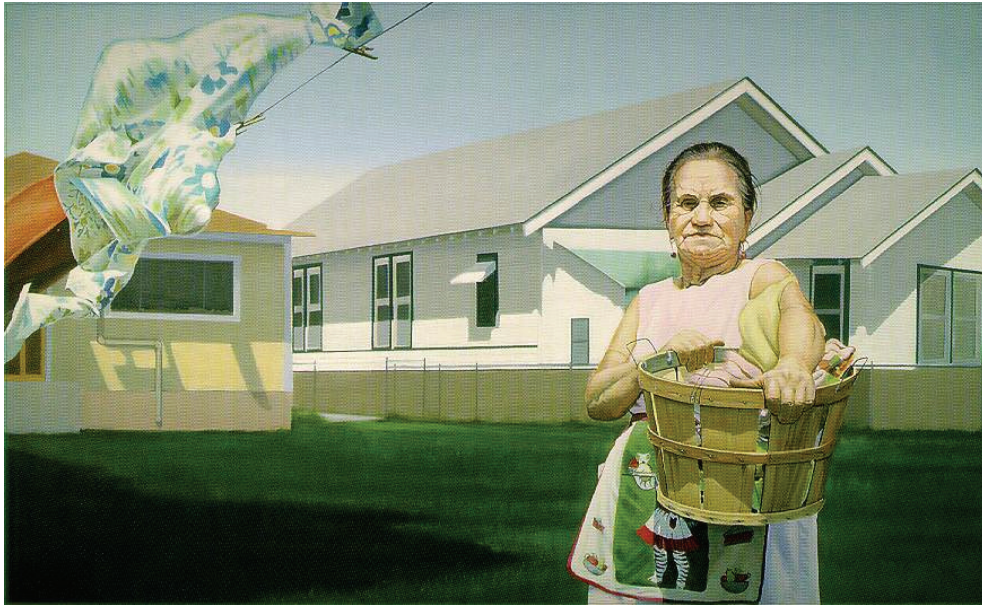
문화예술 | Latin American Culture

[미국에서 활동한 히스패닉 아티스트 시리즈 ⑥]

베트남 전쟁에서 오른팔을 잃은 제시 트레비뇨

유화열

히스패닉 느낌 물씬 풍기는 화가 가운데 제시 트레비뇨가 있다. 텍사스 주에서도 샌안토니오는 유독 어디를 가나 스페인어가 들리고 멕시코와도 같은 삶의 풍경이 느껴지는 곳인데, 그곳에서 제시 트레비뇨는 ‘샌안토니오의 아들’로 통하고 있다. 〈세노라 돌로레스 트레비뇨〉(Señora Dolores Treviño, 1982)는 많은 이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작품 중의 하나다. 12명의 아들과 딸을 낳고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온 그의 어머니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지독히도 가난했지만 그녀에겐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가 똑똑한 사람이 될 거라는 꿈이 있었고,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이런 면에선 우리의 정서와 비슷한 면이 많다). 사진처럼 어찌면 사진보다 선명한 묘사는 세상 어디에도 굴하지 않고 곳곳이 살아온 어머니의 주름살에 보내는 그의 찬사였다. 백악관의 안주인이었던 힐러리 클링턴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술가예요’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명성에 날개를 달아줬다. 유난히 사실성이 돋보이는 그의 그림엔 의외의 사연이 있다. 뉴욕에서 미술공부를 하던 중 그는 베트남전쟁에 파병되는데, 그만 폭탄이 터지면서 오른팔을 아주 못쓰게 됐다. 화가 지망생이었던 청년에게 벌어진 일치곤 너무나 치명적



제시 트레비뇨 「세뇨라 돌로레스 트레비뇨」(Señora Dolores Treviño, 1982)
캔버스에 아크릴, 132 x 213 cm. 샌안토니오 미술관 소장.

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남은 왼손으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새로이 터득해 나갔다. 그것도 지독히 사실적인 묘사 기법으로 말이다. 누구에게나 넘지 못할 것 같았던 거대한 산을 넘으면 그만큼의 가치가 공감되듯이, 그의 예술은 삶의 부단한 노력에서 얻어진 것이다.

내가 살길은 콘테스트에 수상하는 것밖에 없다

제시 트레비뇨는 1946년 멕시코 북부도시 몬테레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아주 어릴 적부터 그의 집은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을 수도 없이 넘나들며 이사를 다녔다. 그 이유는 다 가난 때문이었다. “나는 멕시코에서 태어났지만, 내 위의 형은 텍사스에서 태어났지요. 아버지는 젊을 적에 일자리를 찾아 멕시코와 텍사스 국경을 넘나들었는데, 텍사스에서 어머니를 만나신 거죠. 어머니는 텍사스 태생의 멕시코 이민자였어요.”



제시 트레비뇨는 원래 오른손잡이였으나, 사고 후엔 왼손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아버지는 온갖 허드렛일을 하면서 몬테레이에 집 한 칸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했고, 적어도 우리 가족은 10년 동안 몬테레이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지자 그가 네 살 되던 해에 다시 이삿짐을 꾸려 텍사스로 돌아와야 했다. 아버지가 하던 일 중에는 트럭 운전사가 있었는데, 짐칸에는 돌, 나뭇가지, 흙더미가 잔뜩 쌓였고 아버지는 매일같이 어디론가 실어 날랐다. 당시 그의 가족에게 가장 절박했던 문제는 집에 물이 나오느냐는 거였다. 그만큼 텍사스 샌안토니오로 모여든 이민자의 삶의 질이란 형편없었다. “어린 나이인데도 몬테레이에서 텍사스로 이사한 것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웬걸 우리 집은 이사를 밥 먹듯이 다녔어요. 짐 꾸러미를 쌓고 또 다시 쌓아야하면서, 현실이란 걸 알게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삶의 무게에 힘겨워 하던 무렵, 그에게 로또 같은 행운이 날아왔다. 샌안토니오의 위트 박물관에서 주최한 콘테스트에서 1등상을 받은 것이다. 고작 여섯 살밖에 안됐을 때였다. 상금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관중들이 보는 앞에 자신의 그림이 걸려있다는 사실이 어린 그를 몹시도 흥분케 했다. 그때의 짜릿한 쾌감이란 평생토록 잊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그가 확실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부모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절대 지원할 수 없어도, 상을 받으면 가난한 자신의 집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그의 목표는 콘테스트에서 수상하는 것이었고, 꿈이 되었다.¹⁾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하루가 아주 빨리 지나갔고, 먹고 싶고 갖고 싶었던 것도 참아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께름칙한 일이 일어났다. “하얀 담벼락에 그림을 그릴 때면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어머니가 남의 집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고 모조리 지우라고 하셨죠. 내 그림이 비눗물로 씻겨 나가던 그 날의 기억이 왜 그렇게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워진다는 것은, 나에겐 몹시도 화가 나는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는 늘 일밖에 모른 줄 알았는데 대낮 인데도 집에 계셔서 이상했었죠. 그런데 형들이 집에 돌아와서야 아버지가 49세의 나이에 돌연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됐다. 12명의 아들딸과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그의 부인을 남겨둔 채……. 우리 가족의 삶은 슬플 겨를도 없이 형들은 아침이면 일터로 나가야했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돈 되는 일을 찾아 얼굴도 볼 수 없이 바쁘기만 했다. 형제 중에 유달리 어머니에게 살갑게 굴던 그는 어머니와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어머니는 엉덩이도 붙일 시간도 없이 매일매일 일만 하고 살았다.” 햇빛 좋은 날 빨래바구니를 들고서 가사일에 여념이 없는 <세뇨라 돌로레스 트레비뇨>는 그가 마주했을 어머니의 어느 날이 기억된 것이다.

갈수록 집안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안보였고, 그럴수록 콘테스트 수

1) Interview with Jesse Treviño, Conducted by Cary Cordova, San Antonio, Texas, July 15-16, 2004.

(<http://www.aaa.si.edu/collections/interviews/oral-history-interview-jesse-treviño-11789>)

상에 대한 집착은 더해만 갔다. 콘테스트 공고가 뜨면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지원했고, 매일매일 콘테스트를 위한 그림에 매달렸다.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이 결과는 참담했다. 고등학교 졸업반에 들어서선 마음만 조금해졌지 뭐 하나 진전된 것도 없었다.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그의 고등학교 미술선생님 캐서린 알셉은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결과가 따라주질 않아서 몹시도 안타까워했다. 그녀는 프랫 연구소에서 패션디자인을 수학한 재원이었고, 프랫의 교육지침 가운데 연필, 파스텔, 유화에 이르는 전통적 미술기법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다. 트레비뇨는 그녀의 신망이 두터웠던 학생이었으므로 그녀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국제적 수준의 미술학교의 장학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왔다. 절대로 이 기회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는 심혈을 기울여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총 20장으로 구성된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어릴 적부터 성장해온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나갔다. 드디어 미연방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에게 부여하는 전액장학금을 거머쥐었을 뿐만 아니라, 꿈에도 그리던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Art Student League)에 합격했다.²⁾

뉴욕의 미술학도에서 베트남 파병용사로

“1966년의 그 날은 아주 특별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스페인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우리 학교를 방문했거든요. 학교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온다는 소식에 완전 흥분 상태였죠. 마침내 그가 탄 택시가 모습을 드러냈지만, 택시는 유유히 학장이 있는 행정건물을 향해 지나갔어요. 그를 만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곳에서 거장을 본 것만

2) Lionel Sosa, Napoleon Hill Foundation, *Think & Grow Rich: A Latino Choice*, Random House Digital, Inc., 2006, p.63.



제시 트레비뇨 「나의 형제들」 (Mis Hermanos, 1976), 캔버스에 아크릴, 121.9 x 177.8 cm.
스미스소니언 미국 미술관 소장.

으로 나에겐 특별한 경험이었지요. 그때가 열여덟 살이었으니까요.”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재학하는 동안 파리에서도 공부할 기회가 생겼고, 뭐든 조금만 노력해도 바로 결실이 생겼다. 그렇게 1년쯤 뒀을 무렵, 샘 삼촌에게서 편지 한통이 도착했다. 이제 갓 열아홉 살이 된 트레비뇨에게 날라든 베트남 파병통지서였다. 그 순간 많은 생각들이 그를 스쳐지나갔다. 어릴 적부터 미국에서 살았으나 그때까지도 시민권이 없었던 그에게 신분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았다. 실제로 그의 주변에선 신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멕시코로 돌아간 이들로 더러 있었다. “형들은 해군, 육군에 복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하필이면 나에겐 전쟁파병이라니…….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형들은 전쟁터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많이 두려웠어요.”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1967년 2월, 베트남 전쟁터에 있던 그 날은 아주 운이 없었다. 위장 폭탄에 그의 얼굴이 부딪치면서 순식간에 터져버

린 것이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온몸에 파편이 박힌 채 그는 논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흙탕물이 빨강게 물들어가는 것까지였다. 모르핀 주사가 그의 정맥을 타고 흘러들어가 의식은 없었어도, 그의 앞에 어머니가 나타났다. 뒤이어 11명의 형제들과 자매들도 나타났다. 얼마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살아온 동안 만났던 사람들도 보였다. “내가 만약 여기서 살아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살아온 샌안토니오의 사람들을 그리고 싶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2년여 동안 병원생활을 마친 뒤에 그는 꿈에도 그리던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다. 베트남파병 전만 해도 유명해지는 것, 최고가 되는 것에 목표를 뒀고 솔직히 샌안토니오를 떠나 가능하면 먼 곳이 좋았다. 그는 예전과 달리 아주 많이 변해있었다. 그래도 그림에 대한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다. 사고가 났을 때만 해도 치료만 잘 하면 회복 기미가 보였는데, 갈수록 오른팔 전체로 신경이 죽어가면서 절단수술을 받아야 했고, 모든 것이 여의치가 않았다. 처음엔 붓을 쥐 힘이 없었다가 조금 있으니까 아예 붓을 쥐 손가락도 손도 없어지고 말았다. 육신의 고통과 암울함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해도, 현실은 어렵기만 했다. 어릴 적엔 가난이 현실이었고, 콘테스트 수상이 현실이었지만, 이젠 혼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의 현실이 되었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지하고 샌안토니오 칼리지에 등록했다(도시마다 여러 곳에 캠퍼스를 둔 칼리지는 대학전공수업을 비롯해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어학연수, 고등학교 검정고시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제 믿을 것은 왼손밖에 없다고 확신한 그는 절대적으로 왼손에 의지해 회화와 드로잉 수업을 받았다. 훈련과정은 혹독했으나 목표가 뚜렷했던 그였기에 장애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곧이어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대학(Our Lady of the Lake University)에서 학사를, 텍사스 주립대학(샌안토니오 캠퍼스)에서 석사를 받았다.



크리스투스 산타 로사 어린이 병동을 위한 모자이크 벽화는 지역적 정서를 담아낸 수작으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샌안토니오를 느끼게끔 하는 랜드마크로 평가된다.

그는 어릴 적에 살았던 샌안토니오의 웨스트사이드 동네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마치 사진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포토리얼리즘(Photorealism)은 보는 이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정교하다. <세노라 돌로레스 트레비뇨>, <나의 형제들>과 같은 작품엔 마친 한 장의 사진을

보듯 사실적인 묘사가 바탕이 되어 있지만, 여기엔 어머니와 형제들의 성품을 다 파악했던 터라 그것까지도 포착했다. 어쩌면 내면까지도 함께 찍어낸 스냅사진에 가깝다.

샌안토니오의 랜드마크는 멕시코 풍이었다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에 펼쳐낸 제시 트레비뇨의 공공미술에 대한 열정은 가히 전설적이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크리스티스 산타 로사 어린이 병동에 설치된 모자이크 벽화 「치유의 영혼」(Spirit of Healing, 1998)이 있다. 높이만 해도 무려 28미터에 이르고, 70종에 이르는 타일 색상을 이용해 퍼즐처럼 조립하는 방식으로 벽면에 부착했다(북미 벽화 가운데 가장 높은 것 중의 하나로 기록된다).

제시 트레비뇨의 이름은 히스패닉 예술가를 대표하는 명단에서 빠지지 법이 없다. 그에 관한 평가는 지극히 문화적인 범주에 놓여있다. ‘라틴아메리카 문화에 초점을 맞춘 예술가’, ‘자신의 사적인 경험을 민족적인 정서로 잘 버무린 예술가’와 같은 문구는 그를 소개하는 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유화열 -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LLILAS) 방문학자